

# 시의회, 강기정 표 예산 407억 '씩둑'...잇속 예산은 90억 증액

### 5·18 시내버스 무료이용·융복합 프로젝트 등 강시장 공약사업 삭감 시의원 지역구 축제 예산 신설·해외 출장 예산은 늘려 비판 목소리 광주시 전략추진단 운영 예산 전액 감액 등 '집행부 길들이기' 논란도

광주시의회가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사업 등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400억원 넘게 대폭 삭감하고, 자신들의 소모성 국외 출장비와 지역구 축제 예산 등은 100억원 가까이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자치구 축제와 공원 관리 등 이른바 '선심성 예산' 증액이 상당액인 것으로 드러나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주민 표 잡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는 광주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 6069억원 중 407억5000만원 삭감을 결정했다. 반면 지역구 축제,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시의원 출장비 등 시의원들과 밀접한 지역구나 조례 관련 예산은 90여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5·18 기념일 당일 대중교통 무료 지원을 비롯한 산단 무료 셔틀버스 지원 사업, Y 프로젝트 사업 등 강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5·18 대중교통 무료 지원 사업은 시의회가 시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부에선 '집행부 길들이기' 예산 삭감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은 내년도 예산안에 5·18 기념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예산 2억 6800만원과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예산 5100만원을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 삭감 배경으로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연간 14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중이고, 도시철도 역시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강 시장의 대표 공약 Y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26억3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원들은 광주시가 지난 10월 설계가 끝난 송산섬

테마시설,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방향성과 더 맞는 '영산강 생태 숲길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달 중순에나 공사 계약이 가능한 체험관 공사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광주시 전략추진단의 내년도 정책사업인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과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 2억 8200여만원을 전액 감액해 사실상 조직 존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전략추진단이 최근 공공기관 현장 대화 행사에서 '시장 질문 제한 지침'을 만드는 등 물의를 빚어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전략추진단은 민선 8기 강 시장 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된 조직이다. 또한, 대변인실 인터넷방송 등의 예산도 전년과 같은 액수이지만, 이유없이 절반을 삭감하면서 직원 인건비 등이 없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는 이처럼 강기정 시장과 관련한 예산은 잇따라 삭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역구와 연결된 자치구 사업에는 일부 보조금을 늘리고, 시의원 관련 국외 여비 역시 증액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시의회는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예산을 기존 25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35억원으로 늘렸고, 장기 요양병원생활시설 지원은 1억15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시의원들의 지역구 축제인 양동시장 통매축제(2억원), 무등시장 야시장 축제(1억원) 예산을 신설하는 등 자치구나 주민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대폭 늘렸다. 시의원들의 국외 출장 예산도 기존 2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증액했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는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연말 이웃 돕는 '사랑의 종소리' 8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한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구세군 성금활동은 24일까지 계속된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시리아 반군, 수도 다마스쿠스 장악...13년 만에 '해방' 선언

### 53년 알아사드 철권통치 막 내려 총리 "새 시대 맞아 협력 준비됐다"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 불과 열흘 남짓 사이에 '파죽지세'로 주요 도시를 속속 점령해온 시리아 반군이 8일(현지시간)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했다.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리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반군이 코앞에 다가오자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전쟁에 이어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중동정세가 또다시 급변하고 있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을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은 이날 오전 다마스쿠스 공공기관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다마스쿠스가 해방됐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반군은 또 국영 TV를 통해 알아사드 대통령의 24년 통치를 무너뜨렸으며, 그동안 '부당하게 구금됐다' 사람들 전원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알아사드 정권의 모하메드 알잘리 총리는 알아사드 대통령을 '폭군'이라 부르며 그가 시리아를 떠났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선택한 모든 지도부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알잘리 총리는 이와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방송 알아라비아에 시리아 역사의 새 장이 열렸으며 HTS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줄라니와 접촉해 현과도기 상황 관리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알아사드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은 전날 밤으로, 대통령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리아는 자유선거를 실시해 국민이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리아 정부군도 알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났으며, 군 지휘부가 병사들에게 더는 복무할 필요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dpa 통신이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13

년 만에 반군에 무너지게 됐다.

시리아 내전은 미국, 러시아, 튀르키예, 헤즈볼라, 쿠르드 민병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까지 가세한 국제전으로 번지며 50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고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

HTS는 지난달 27일부터 무서운 속도로 진격을 거듭해 알레포, 하마, 홈스 등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이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6년 만에 다마스쿠스까지 진압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 1971~2000년 장기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으며, 알아사드 부자가 53년간 독재 철권 통치를 해왔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특히 내전 발발 후에는 화학무기까지 써가며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

제사회에선 '중동의 불사조'로 불리며 최악의 학살자, 전쟁 범죄자로 거론돼 왔다.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장악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반(反)알아사드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다만 시리아 정부군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주변국은 국경 폐쇄에 나섰다. 레바논은 수도 베이루트와 다마스쿠스를 잇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육로 국경을 단았고, 요르단도 시리아와의 국경 검문소를 폐쇄했다. /연합뉴스

## 전남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 만족도 높아

### 39개 섬 607명 혜택

"오래 너무 좋더라, 이런 좋은 세상에 살아 있어서 호사를 누리구만요."

섬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의사들을 만나 진료를 받고 무료로 펌 서비스를 받으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지역대학,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 6일 수선화의 섬 신안 지도읍 선도에서 실시된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에 섬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 지역 주민에게 진료 시스템 구축, 건강체크, 원격 진료, 약 처방 및 대면 진료 예약, 약 배송, 구급약품 제공 등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0월부터 고흥 연호동, 완도 충도, 여수 대항간도 등 전남 7개 시·군 39개 섬에 서비스를 제공해 총 607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선 비대면 원격 진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마우 서비스 등 상시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기 어려운 섬 주민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